

# 대졸자의 자격보유가 취업과 일자리적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미정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llege graduates' qualifications on employment and job suitability

Mi-Jung Lim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Vocationology,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졸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과 일자리적합도 분석을 통해 자격의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SPSS 25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취업의 효과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특히, 비 서울권 대졸자의 자격보유는 취업 및 일자리적합도를 높이는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속성과 학교소재지에 따른 자격의 효과성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자격보유 독려와 취득 지원은 대졸자의 취업과 일자리적합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자격 효과, 일자리적합도, 취업, 학교소재지, 대졸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graduates who obtain qualifications, and to check the economic and in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employment and job relevance according to their school area. For the main research, the “2016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data was used to perform basic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 This study reaffirmed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as stated in the preceding study, and in particular, the qualification of non-Seoul area colleges student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and job compatibility.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ccording to individual attributes and location of school may differ, but it suggests that proper qualification encouragement and acquisition support can help the employment and job convergence of college graduates.

**Key Words** : Qualification effect, Job suitability, Employment, School area, College graduates

###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 증가는 대졸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 고숙련 일자리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

\*Corresponding Author : Mi-Jung Lim(linmeichung@naver.com)

Received May 7,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ne 29, 2020

Published July 28, 2020

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 문제가 대졸 청년층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1]. 또한, 대졸 수준의 일자리 공급에 제약이 있는 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 또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위해 각종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에서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를 보충해주어 거래비용과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2]. 이러한 자격취득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자격취득 집중반 운영과 지원책 등으로 자격취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자격은 취업준비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격의 경제적 효과인 취업과 임금효과는 일부 상이한 결과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2,3]. 하지만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즉, 지역별 일자리적합도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격의 경제적 효과인 취업과 비경제적 효과인 일자리적합도,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학교소재지에 따른 자격보유 상호작용 효과까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대졸자에게 자격보유 및 활용에 대한 적합한 방법을 제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의 인적속성별 자격보유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대졸자의 자격보유가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대졸자의 자격보유가 일자리적합도에 영향을 미쳤는가? 넷째, 자격보유자의 학교소재지는 일자리적합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자격과 자격의 효과성

자격은 개인에게는 학습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학습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는 직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신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채용 및 승진을 포함한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시 인적자원 수

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 취업과 임금효과를 모두 보인 연구와[4-6], 취업효과는 있으나 임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들이 있다[2]. 비경제적 효과를 다룬 연구결과는 많지는 않으나 주로 일자리적합, 직무만족, 직무몰입등이 다루어졌다[5,7]. 추가적으로 자격취득자의 속성과 관련된 세부결과들을 살펴보면 성별, 자격증 수, 학력, 전공, 자격 분야별에 따라 자격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학력층의 자격취득이 취업선택의 확률을 높이고[8], 자격증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는 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 개수 이상의 다수 자격증 보유는 낮은 수준의 자격증을 다수 보유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9].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취업 후 임금효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6]. 한편 취득 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 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자격의 경우 여성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고, 정규직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10].

이상과 같이 자격 관련 연구는 취업효과, 임금효과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이며 자격보유가 지역별로 일자리적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비경제적 효과 측면과 연계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자격의 비경제적 효과의 하나로 연구되는 일자리적합도는 '직무적합성을 토대로 직무의 특성과 자신의 개인적 특성의 조화, 조직과 개인의 목표일치'등으로 정의된다. 일자리적합도 또는 업무적합도 관련 국내외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력과 직업불일치의 하향취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1]. 일자리적합도와 관련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취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합도, 학력적합도, 전공적합도를 사용한 연구가 있으며[12], 장애인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노동을 교육수준 적합도, 기술수준 적합도, 지식/기능의 활용도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도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GOMS자료에 있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교육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기준으로 일자리적합도를 분석하였다.

Table 1. Pre-Study on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of Qualification

Division	Analytical data	Model	Economic effect		Non-economic effect	
			Employment	Wage	Job suitability	Job satisfaction
Lee Dongim, Kim Deokgi (2002)	labor panel	Heckman	0	0		
		Fixed model of selection				
Kim Anguk, Kang Sunhui (2004)	labor panel	Fixed Effect Model	0	X		
Lee Dongim, etc. (2006)	Human Capital Enterprise Panel Survey, Employment Structure Survey by Industrial Occupation, etc.	Binary logarithmic model	0	X		
		OLS				
Choi Yeongseop (2007)	Youth Panel Survey (YP)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X		
Lee Man Khee (2008)	A Survey on the Movement Paths of College Graduates' Vocational Jobs	tt-verification, binary logit model	0	0	0	0
Lee Yohaeng, Kwon Hyeja (2009)	A Survey on the Movement Paths of College Graduates' Vocational Jobs	OLS	0	X		
Park Yungyeong, Lee Yeongmin (2012)	A Survey on the Movement Paths for College Graduates (Women's Student Grand Prize)	Verification logit model	0	0		0

Note: The above table is supplemented by researchers based on the table of Lee Young-min and Lee Ho-seop (2011) studies.

## 2.2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성과 및 자격보유 효과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취업결정요인중 하나인 대학 특성 변인을 종합해 보면, 대학의 구조적 특성 중 수도권과 비서울권 대학 같은 소재지가 취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를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14]. 한편 취업여부는 수도권과 비서울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의 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15].

대졸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과의 직무일치도의 연구에서는 비서울권 대학 졸업생일수록 전공불일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비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전공불일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16,17]. 반면 교육수준 불일치 현상은 대학 소재지 간 차이가 없다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18]. 학교소재지별 자격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대학교육의 도움이나 전공 관련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취업이나 소득에 보통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 준비 중인 자격에 대해서는 취업과 소득에 있어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상과 같이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효과의 연구에서 비서울권대학 학생들이 취업이나 직무일치도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격보유가 취업과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효과성이 있는지 서울권을 기준으로 타 지역권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격과 일자리적합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SPSS 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6GOMS"는 2015년8월과 2016년2월 2~3년제, 4년제, 교육대를 졸업한 18,1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이며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응답자의 첫번째 취득 자격증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일자리적합도 변인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에 비해 일자리가 적합한 정도'로 하였다.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은 5개의 척도 중 '수준에 알맞다=1'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준에 맞지 않다=0'로 더미 처리하였으며 전공수준은 '잘 맞는다'와 '매우 잘 맞는다'는 '수준에 알맞다=1'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수준에 맞지 않다=0'로 더미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있어 자격보유가 필수인 학교유형의 교육대는 4년제에 포함 시켰고 전공계열의 '의학'부문은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교유형, 재학 중 일자리참여, 직업교육참여, 고용형태, 학교소재지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격보유를 중심으로 한 인적속성 및 경제활동상황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하였다. 자격보유에 따른 취업의 효과와 일자리적합도 효과분석, 학교소재지에 따른 자격보유자의 일자리적합도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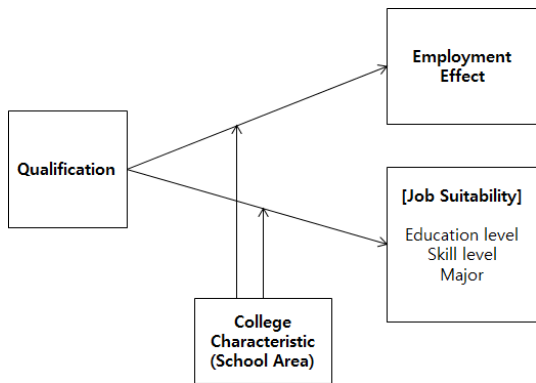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4. 연구결과

### 4.1 기초통계 분석

2016년도 GOMS자료로 분석한 인적속성별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을 보유한 응답자는 18,199명이며, 이 중 59%인 10,730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자격보유율은 62.8%로 남성보다 7.2%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의학, 교육, 사회, 공학 순으로 자격보유비율이 높았으며 상용근로자 10,376명 중 61.8%인 6,417명이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에서는 교육대 95.7%로, 2~3년제 65%, 4년제 56.6%순 이었다.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격보유율은 전라권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권이 4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자격취득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라고 여겨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현 직장 종사자 수 기준의 자격보유에서는 30명 이하의 소기업 자격보유율은 57.9%로 가장

낮았으며, 1000명 이상의 대기업도 중견기업보다는 낮은 59.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기업 취업에 자격증 보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Status of Qualification Holding by Human Attributes

Human attribute		Qualification		Total
		Yes	No	
SEX	MALE	5,429(55.6)	4,333(44.4)	9,762(53.6)
	FEMALE	5,301(62.8)	3,136(37.2)	8,437(46.4)
Total		10,730(59.0)	7,469(41.0)	18,199(100)
Major Field	Humanities	1,061(49.9)	1,066(5.1)	2,127(11.7)
	Sociology	2,288(61.1)	1,458(38.9)	3,746(2.6)
	Pedagogy	1,013(87.3)	148(12.7)	1,161(6.4)
	Engineering	2,925(56.0)	2,300(44.0)	5,225(28.7)
	Natural Science	1,433(54.9)	1,178(45.1)	2,611(14.3)
	Medicine	1,164(9.0)	129(1.0)	1,293(7.1)
	Art and Physical	846(41.6)	1,190(58.4)	2,036(11.2)
Total		10,730(59.0)	7,469(41.0)	18,199(100)
Working Position	Commercial worker	6,417(61.8)	3,959(38.2)	10,376(77.7)
	Temporary worker	1,237(55.1)	1,006(44.9)	2,243(16.8)
	a day laborer	82(51.3)	78(48.8)	160(1.2)
	self-employed work	113(55.1)	92(44.9)	205(1.5)
	self-employed work with employees	161(46.9)	182(53.1)	343(2.6)
	unpaid family	17(51.5)	16(48.5)	33(2.2)
Total		8,027(6.1)	5,333(39.9)	13,360(100)
Type of School	two or three-year	2,928(65.0)	1,579(35.0)	4,507(24.8)
	4-year	7,669(56.6)	5,884(43.4)	13,553(74.5)
	Educational college	133(95.7)	6(4.3)	139(8.8)
Total		10,730(59.0)	7,469(41.0)	18,199(100)
School Area	Seoul	1,824(46.0)	2,137(54.0)	3,961(21.8)
	Gyeonggi	2,216(56.0)	1,739(44.0)	3,955(21.7)
	chungcheong	1,773(61.3)	1,169(39.7)	2,942(16.2)
	Gyeongsang	3,371(66.8)	1,673(33.2)	5,044(27.7)
	Jeolla	1,546(67.3)	751(32.7)	2,297(12.6)
Total		10,730(59.0)	7,469(41.0)	18,199(100)
The number of current workers	1~29	2,342(57.9)	1,700(42.1)	4,042(34.5)
	30~499	2,421(63.6)	1,388(36.4)	3,809(32.5)
	500~999	496(62.3)	300(37.7)	796(6.8)
	1000~	1,834(59.5)	1,248(4.5)	3,082(26.3)
	Total		7,093(6.5)	4,636(39.5)

## 4.2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 4.2.1 자격의 취업효과

자격보유에 따른 취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취업여부로 하여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격의 취업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인 성별(남=1,여=0), 연령, 연령자승, 학력(4년제=1, 2,3년제=0), 일자리경험(유=1, 무=0), 직업교육(유=1,무=0), 자격증(유=1,무=0), 학교소재지(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였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자격보유는 기존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소재지가 포함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취업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2,3년제 졸업자일수록 취업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 중의 일자리경험이 있을수록,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취업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권일수록 서울권보다 취업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The employment effect of qualifications

Employment effect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Wald	Significance probability	Exp(B)	
Male	.038	.040	.927	.336	1.039	
Age	.161	.035	21.452	.000***	1.175	
Age-squared	-.002	.000	12.581	.000***	.998	
Job experience	.121	.036	11.597	.001***	1.129	
Vocational education	.478	.045	114.267	.000***	1.613	
4-year system	-.319	.047	45.289	.000***	.727	
Qualification	.131	.035	13.797	.000***	1.140	
School Area	Gyeonggi	.126	.054	5.567	.018***	1.135
	chung cheong	.056	.056	.989	.320	1.058
	Gyeong sang	-.075	.049	2.304	.129	.928
	Jeolla	-.056	.061	.859	.354	.945
Constant term	-2.036	.557	13.381	.000***	.131	
2Log Likelihood	20654.269					
N	18112					

\*\* p<.05, \*\*\* p<.01

### 4.2.2 자격보유자의 일자리적합도

대졸 자격보유자의 일자리적합도는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대학특성 중 학교소재지

와의 연관분석을 위하여 서울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격보유자의 일자리적합도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격증이 포함된 지역별 일자리적합도에서는 자격보유가 서울권역보다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 모두에서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보유와 학교소재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서는 전라권, 전공에서는 경기경상-전라권역에서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일자리적합도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 자격보유가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가 서울권에 비해 충청권-경상권-전라권에서 일자리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과 학교소재지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전라권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통계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서울권역보다 전라권역에서 자격을 보유한자가 교육수준에 알맞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수준의 일자리적합도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성별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 자격보유가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학교소재지가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충청권-경상권-전라권인 지역의 일자리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보유와 학교소재지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술수준의 일자리적합도 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본인 직무와 관련된 자격으로 인해 일자리적합도가 높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일자리적합도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자격증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성별 효과가 없었으나 자격증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남성이 전공일치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공학 및 자연계열에서 남성 비율이 높고 관련 전공 분야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년제, 정규직일수록, 자격을 보유할수록 전공일치 일자리만족도가 높았으나, 학교소재지를 경상권 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과 학교소재지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자격증 소지 효과뿐 아니라 충청권을 제외하고 경기권-경상권-전라권에서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경상-전라권에서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서울권보다 전공일치로 인한 일자리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Effect of job suitability of Qualified Owners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School Area		Qualification Effect		Qualification x Area Interaction		
	B	S.E.	B	S.E.	B	S.E.	
Male	-.105	.046**	-.094	.046**	-.091	.046**	
Age	-.237	.063***	-.232	.063***	-.232	.063***	
Age-squared	.004	.001***	.004	.001***	.004	.001***	
4-year system	-.036	.052	-.030	.053	-.029	.053	
Permanent employee	.512	.041***	.506	.041***	.506	.041***	
Vocational education	.017	.044	-.001	.044	-.001	.044	
School Area	Gyeonggi	.088	.057	.076	.057	-.002	.081
	chungcheong	.387	.062***	.366	.062***	.266	.093***
	Gyeongsang	.237	.054***	.209	.055***	.141	.084
	Jeolla	.277	.068***	.247	.069***	.077	.110
Qualification			.143	.039***	.006	.078	
Qualification x Gyeonggi					.161	.110	
Qualification x chungcheong					.194	.124	
Qualification x Gyeongsang					.142	.110	
Qualification x Jeolla					.294	.141**	
Constant term	3.527	.928***	3.379	.929***	3.451	.930***	
2Log Likelihood	16311.253		1634.983		16297.869		
N	12627		12465		12627		

\*\* p<.05, \*\*\* p<.01

**Table 5. Effect of job suitability of Qualified Owners (Skill Level)**

Education Level	School Area		Qualification Effect		Qualification x Area Interaction		
	B	S.E.	B	S.E.	B	S.E.	
Male	-.076	.046	-.068	.046	-.066	.046	
Age	-.348	.065***	-.344	.065***	-.344	.065***	
Age-squared	.006	.001***	.006	.001***	.006	.001***	
4-year system	.031	.053	.036	.053	.037	.053	
Permanent employee	.494	.041***	.490	.041***	.490	.041***	
Vocational education	-.004	.044	-.017	.044	-.017	.045	
School Area	Gyeonggi	.066	.057	.058	.057	.003	.081
	chungcheong	.302	.063***	.287	.063***	.261	.094***
	Gyeongsang	.172	.055***	.152	.055***	.095	.085
	Jeolla	.298	.070***	.277	.070***	.124	.112

Qualification			.100	.039**	.007	.079
Qualification x Gyeonggi					.112	.112
Qualification x chungcheong					.063	.126
Qualification x Gyeongsang					.113	.111
Qualification x Jeolla					.257	.143
Constant term	5.308	.963***	5.204	.964***	5.254	.964***
2Log Likelihood	16058.858		16052.489		16049.020	
N	12627		12465		12627	

\*\* p<.05, \*\*\* p<.01

**Table 6. Effect of job suitability of Qualified Owners (Major Match)**

Education Level	School Area		Qualification Effect		Qualification x Area Interaction		
	B	S.E.	B	S.E.	B	S.E.	
Male	.073	.048	.105	.048**	.110	.048**	
Age	-.274	.064***	-.261	.064***	-.262	.064***	
Age-squared	.004	.001***	.004	.001***	.004	.001***	
4-year system	.136	.055**	.156	.055***	.160	.055***	
Permanent employee	.510	.042***	.497	.043***	.499	.043***	
Vocational education	.139	.047***	.089	.047	.088	.047	
School Area	Gyeonggi	.060	.061	.026	.061	-.096	.084
	chungcheong	.132	.066**	.074	.066	.051	.097
	Gyeongsang	-.102	.057	-.181	.058***	-.388	.085***
	Jeolla	.162	.073**	.080	.074	-.067	.114
Qualification			.384	.041***	.174	.084**	
Qualification x Gyeonggi					.265	.119**	
Qualification x chungcheong					.089	.132	
Qualification x Gyeongsang					.385	.115***	
Qualification x Jeolla					.294	.149**	
Constant term	4.520	.954***	4.149	.956	4.262	.957	
2Log Likelihood	16311.253		1634.983		16297.869		
N	12627		12465		12627		

\*\* p<.05, \*\*\* p<.01

## 5. 결론

우리사회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자격은 학력을 보완하고 개인의 능력을

표현해주는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대졸자의 자격보유가 취업과 일자리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자격보유율은 62.8%로 남성보다 7.2%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의학, 교육, 사회, 공학 순으로 자격보유율이 높았으며, 학교소재권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격보유율은 전라권이 67.3%로 가장 높았고 서울권이 4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자격취득율이 평균적으로 50%이상 상회하면서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자격이 특정 분야 구인요건의 충족 조건이 아니라, 구직을 위한 취업준비의 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20]. 둘째, 자격보유는 기존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효과가 있고, 2,3년제 졸업자일수록, 재학 중 직업교육 및 일자리에 참여할수록 취업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격보유가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 모두에서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보유와 학교소재권역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서울권역과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서는 전라권, 전공에서는 경기-경상-전라권역에서 일자리적합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격이 취업확률을 높이고, 그동안 연구가 적었던 지역관련 연구에서도 비서울권 대학 대졸자의 일자리적합도가 부분적으로 효과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개인속성과 학교소재지에 따른 자격의 효과성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지역별 자격취득프로그램의 지원은 대졸자의 취업과 일자리적합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자격발급주체(국가자격, 민간자격, 해외자격)와 자격등급(기술사~기능사, 1급~3급)에 따라 분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학교소재권역의 구분을 GOMS에서 구분한 5개 권역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차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학교소재권역별 일자리적합도 효과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별 자격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었고 자격증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격의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성이 취업과 함께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H. Y. Oh. (2007). University Hierarchy and Labor Market Outcome - Wage Differentials between Provincial and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Graduates -.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0(2), 87-118.
- [2] A. K. Kim & S. H. Kang. (2004). The Factors of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nd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7(1), 1-25.
- [3] K. Y. Lee & Y. H. Kim. (2003). The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3(2), 69-93.
- [4] D. L. Lee & D. G. Kim. (2002). A Study the Impact of Vocational Qualification in the Labor Market.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0(2), 87-118.
- [5] M. K. Lee. (2008). Actual Condition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Possessor And Effect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Possession On Employment And Wag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3), 131-149.
- [6] [Y. K. Park & Y. M. Lee. (2012), The Effect of the Female College Graduates` Acquisition of Qualification on Employment, Wage, and Job Satisfaction, When Their Entering into Labor Marke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9(3), 135-150.
- [7] D. L. Lee & S. J. Lee. (2008).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Centering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Level.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26(3), 51-77.
- [8] A. K. Kim. (2003). An Analysis of the Factors of Youth Unemployment and Nonparticip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6(1), 23-52.
- [9] Y. J. Hwang & B. B. Back. (2008).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vol*, 11(2), 1-23.  
DOI : 10.36907/krivet.2008.11.2.1
- [10] Y. H. Lee & H. J. Kwon. (2009). The Effect of Occupational Certific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Graduate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8(4), 95-111.
- [11] S. M. Jin & J. S. Kong. (2011). The Effects of College Graduates` Overeducation on Work Transi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1), 95-120.
- [12] S. H. Kim. (2005). Individual and Social Outcomes of First Employment Through Social Networks and Formal M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1), 53-85.
- [13] J. A. Son & S. M. Park.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ased on

- the Decent Job Perspectiv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1(1), 31-165
- [14] J. S. Ryu. (2003). A Study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of Provincial College Graduates.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9(1), 171-196.
- [15] B. S. Rhee & J. Y. Choi. (2009), Exploring the Differential Impac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Recent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36(1), 191-215.
- [16] J. W. Lee & S. B. Jeong. (2018). A decent job for a university graduate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6(4), 189-206.  
DOI : 10.31324/JRS.2018.12.26.4.189
- [17] H. S. Kim. (2010).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 55-92.
- [18] [N. H. Hwang & J. Y. Jeong. (2011). Factors of Downgrading Employment of Young College Graduat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1(2), 271-292.
- [19] Y. S. Ahn, Y. J. Kim, H. J. Chung & H. J. Seo. (2011). Status and Strategies of License Acquisi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r Regional HR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7(3), 125-151.
- [20] C. S. Park. (2010).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on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3(2), 91-110.  
DOI : 10.36907/krivet.2010.13.2.91

임 미 정(Mi-Jung Lim)

[정회원]



- 2003년 6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MIS학과(경영학 석사)
- 2020년 8월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예정
- 2018년 9월 ~ 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인증본부장
- 관심분야 : 직업, 자격, ICT

· E-Mail : linmeichung@naver.com